

# 음식, 식탁 평등화·요리 혁명기 거쳐 문화가 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미식 인문학

김복래 지음

“프랑스에서 식탁은 하나의 예술이고 식탁 예술은 하나의 문화이다.”  
한번 정도 들어봤을 말이다. 그만큼 프랑스인들은 잘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미식 예술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를 거듭했다.

17세기 절대권력을 쥔 루이 14세는 위대한 프랑스 요리 전통을 세웠다고 알려진 다. 최고 수준의 요리법과 미식법인 ‘오트 퀴진’을 주창했다. 요리 대가들은 음식의 맛, 색, 장식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했다.

프랑스에서 숭배 문화가 되다시피 한 미식은 비옥한 땅에서 비롯됐다. 풍요로운 자연 유산이 배풍 온전 때문이다. 또 하나는 프랑스인의 조상인 골(Gaul)족 전통 문화에서 연유한다. 그들은 회식문화가 발달했다. 특히 루이 14세의 휴양지인 베르사유 궁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벌어졌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뤘을 것이라는 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프랑스의 ‘미식(美食)’을 다룬 ‘미식 인문학: 프랑스 가스트로노미의 역사’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안동대학교에서 유럽문화와 유럽경제를 강의하는 김복래 교수로 ‘프랑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재미 있는 파리 역사 산책’, ‘프랑스 식도락과 문화정책’ 등의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부제에 들어있는 ‘가스트로노미’라는 어휘는 미식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미식은 지난 2010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만큼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미식은 일생에서 중요한 순간인 출생과 결혼식, 등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적 관습이었다. 여기에는 ‘미각과 시각, 후각, 촉각 등 4대 감각이 하나로 창조된 숭고한 예술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미식은 ‘집단적인 통과



르네상스 시대의 식탁을 보여주는 미하일 다마스키노스의 ‘가나의 혼인 잔치’.

례’와 관련이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줄리아 차일드(1912~2004)라는 미국 셰프의 말이 환기된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음식문화를 표현했다. “나는 갑자기 요리가 풍요롭고 종종으로 쌓여 끊이지 않는 매력을 발산하는 주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기술하는 최상의 방법은 내가 프랑스 음식, 즉 미각과 요리의 과정, 역사와 무한한 다양성, 엄격한 규칙, 창조성, 멋진 사람들, 설비, 그러한 의식(儀式)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예요!”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하루 평균 식사 시간은 2시간 22분이다. 지난 1983년에 비교해 13분이나 연장될 만큼 식사 시간이 길다. 조리과 설거지 등 관련된 가사노동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

저자는 프랑스에서는 음식이 ‘집단’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공유 사상’이 식사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공유사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식사의 의례의 정적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하여 그다지 참용성이나 인내심이 없는 편”이라고 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식사와 식사 도중에 나누는 행복한 담소를 무엇보다 소중한 여긴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균형 잡힌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식단을



미술쟁 3스타 레스토랑의 세프 자크 라멜루아즈의 섬세한 프레젠테이션. <헬스레터 제공>

옹호하는 이들조차도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책에는 향신료의 시대였던 중세 식탁에서 식탁의 르네상스 시대인 15~16세기의 음식 문화가 소개돼 있다. 중세기 식도락의 가장 자극적인 ‘신맛’은 설탕이 나오기까지 대세를 지배했다. 지금과 같은 식탁 예절은 르네상스 시대 정착됐는데 테이블 매너, 포크와 냅킨, 개인 접시가 이 시기에 등장했다.

17~18세기는 요리의 성문화(成文化)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수준 높은 요리법과 미식으로 대변되는 근대 요리혁명이 펼쳐졌다. 프랑스혁명과 미식이 탄생한 19세기는 식도락의 황금기로 레스토랑과 식탁 위의 평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프랑스 요리는 국제화 됐으며 미식과 관광이 결합되는 양상을 낳았다.

미식은 신의 축복이자 세대를 잇는 문화유산이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프랑스 음식문화를 토대로 우리의 문화를 돌아보자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다. “프랑스는 음식 담론과 수준 높은 음식 비평의 성문화(成文化) 작업을 수백 년간 진행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미식 성문화 작업은 최근 들어 관심을 가져온 게 사실이에요.”

<헬스레터> 3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영동 이야기

조남주 지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에 가까워 만들 어려운 게 현실이다. 원룸과 같은 주거 공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집’이 차지하는 의미는 남다르다. 과연 집이란 무엇일까?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조남주가 ‘사는 곳’과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작품집을 펴냈다. 전작 ‘82년생 김지영’으로 여성 서사의 반향을 일으켰던 작가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예리하게 바라본다. 책은 2년 전 여름에 출간됐던 테마소설집 ‘시티 픽션’의 수록작 ‘봄날아빠를 아세요?’가 모티브가 됐다. 모두 7편의 이야기가 가상의 지역인 서영동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연작소설로 ‘봄날아빠를 아세요?’는 집값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그렸다. 반면 ‘서영동 이야기’는 서영동이라는 동네에 사는 다양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고달픈 심신을 누일 수 있는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자신을 증식하기 위한 매개로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해 서영동 집값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가의 매매를 위해 대치동 부동산을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봄날아빠, 검소하고 성실한 아빠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모은 수혜자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다큐멘터리 감독 보미, 학부모이면서 학원장인 탓에 자신의 학원 옆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백은학원연합회 회장 경화 등 다양한 인물들의 집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인물들의 공통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집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 집을 가져서 다행이기도 불행하기도 했다”라는 희진의 말처럼 끊임없이 사는 곳과 사람답게 사는 일 사이에서 분투한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이 겪는 하나의 갈등일 것이다. <한겨레출판> 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급진의 20대

김내훈 지음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행동을 말한다. 우리 시대의 20대 문제를 ‘포퓰리즘 물결’의 맥락에서 바라본 책이 출간됐다. 1992년생으로 학예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이론을 전공했던 김내훈이 발간한 ‘급진의 20대’가 그것. 저자는 그동안 ‘프로보커’가: 그들을 도발해 우리를 결집하는 자들’을 펴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20대 현상을 ‘포퓰리즘 현상’으로 규정한다. 부정적 이미지들이 덧씌운 편견과 달리 포퓰리즘은 사회의 지배체제-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지멸렬할 때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인민의 요구’다.

저자는 오늘날 기성세대의 불공정과 위선에 대해 청년들이 쏟아내는 ‘혐오와 분노’가 사실은 우리 현대사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가난할’ 최초의 세대가 호소하는 목소리라고 본다. 또한 오늘날의 20대는 약자·소수자 배려 정책을 ‘불공정’으로, 사회정의나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처신을 ‘위선’으로 인식한다. 진보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사실 ‘20대 보수화’론의 근거가 된다.

포퓰리즘은 지배체제의 고장을 알리는 ‘증상’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작동원리인 신자유주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서 무능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등장한 세력(예컨대 한국의 민주화 세력과 미국의 리버럴 세력)은 근본적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 그들은 민주화와 정치적 올바름 등의 가치만 내세웠지 정치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결국 K-포퓰리즘은 20대의 혐오와 분노가 한국 사회의 물길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놓고 벌어지는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서해문집> 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연을 사랑하는 법

이소우 지음

기적처럼 맨발을, 상상한 가치를 뚫고 나오는 작고 여린 싹 앞에서 알 수 없는 감동과 희열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오랜 시간 도시에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나고 자랐던 자연의 넓고 따뜻한 품을 다시 떠올리게 된 이소우 작가는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가꾸며 크고 작은 생명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표현하기 위해 색연필과 펜을 들었다. 서툴지만 본 대로 느낀 대로 자연을 향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최근 출간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은 그가 생명·사랑·아름다움·가꿈 등 네 개의 모티브로 그린 글과 그림을 한데 엮은 책이다. 저자는 현재 인스타그램 ‘forestepost(숲속우체국)’에서 우표라는 작은 창을 통해 세상의 풀과 꽃, 나무와 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지은 책으로는 ‘산책의 숲·봄·여름·가을·겨울’, ‘나래실 주말에는 산촌으로 간다’ 등이 있다.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생명, 자연의 숨결 나누기’에서는 아메리카 제왕나비, 민들레와 질경이를 통해 끈질긴 생명력의 근원을 들려준다. 두 번째 ‘사랑, 더 가까이 다가가기’에서는 이끼의 짙사랑, 가시나무의 모성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 번째 ‘아름다움,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나무와 숲에 바치는 헌사 등을 담았다. 마지막 ‘가꿈, 함께 살아가기’에서는 지렁이, 고라니를 통해 조화와 공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책의 말미에는 그림으로 나만의 ‘자연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책수채방> 2만원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